

하나됨과 나눔

“ 사랑,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

< 베드로전서 4장 8-9절 >

- 대강절 연속기도를 18일(월)부터 23일(토)까지 진행합니다.  
기도는 정한 시간에 개인별로 하시고, 면담은 미리 신청하십니다.
- 대강절 연속기도 기간에 무림사랑방 전체심방을 진행합니다.
- 다음 주일(24일) 저녁 7시에 성탄전야예배를 드립니다. 예물은 ‘따뻐 공동체’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유아세례를 원하시는 가정은 사무실에 연락하여 의논해 주십시오.
- 푸른꿈사랑방 공동체생활이 23일(토)-25일(월) 공동체에서 있습니다.
- ‘미아금속’(박동인집사 윤경옥집사 경영)이 공장을 이전하였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민락로 636-8
- 성서일기 범위가 시편에서 서신서로 바뀌었습니다.

제 40 - 51 호

2023년 12월 17일

#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이충환 · 최연우 집사 ( 감사 )  
최창수 · 정혜욱 집사 ( 감사 )

강단을 꽃으로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선교여행을 떠나기 전 그의 중요한 동역자이자 오랜 친구와 큰 갈등을 겪습니다. 함께 하던 사람들은 나눠졌고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1차 여행 때 갔었던 선교지를 돌아보며 그들을 격려도 하고 힘을 얻으려 했지만 그 길도 편하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쉬운 것이 하나 없던 그 때에 갑자기 계시를 받고 그는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설레는 마음보다는 부담이 더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상황과 감정에 집중하기 보다는 그를 변화시키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 길에 처음으로 맞닥뜨린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그는 그 당시 번성하였던 도시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던 중, 한 여자가 따라다니며 괴롭힙니다. 심상치 않은 차림에 말과 행동도 부담스러운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신기가 있었고 그 힘으로 사람들 점을 봐주었는데 그 수익을 착취하는 주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여자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치길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바울은 지금 사역 초기였고 조심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따라다니며 사역을 어렵게 하는 이 사람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니 귀신을 쫓아줍니다. 그 여자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와 가까이 지내던 자들은 그가 고통에서 놓였다는 것에 기뻐하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동안 여인이 겪었을 고통과 아픔을 아는 사람들은 함께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익원이 끊긴 주인은 그 기쁨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기적인 욕심으로 개인의 고통을 자신의 돈벌이로 이용하던 자였기에 바로 고발을 합니다. 이로 인해 바울은 감옥에 갇힙니다.

바울의 길은 갈등을 이겨내고 걸어온 길이었고 불편한 마음을 이겨내던 길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고 안개와 같이 알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고통에서 사람들을 자유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매질을 당한 후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행동할까요? 바울은 놀랍게도 감옥에서 기도하며 찬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기도와 찬양은 그 감옥에 울렸고 죄수들에게, 간수에게, 그리고 많은 빌립보 사람들에게 흘러 넘쳤습니다.

대강절을 맞아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또 기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그리고 공동체에 기쁨과 감격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일상에 파묻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주셨던 기쁨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살기 쉽습니다. 빌립보에 살던 교인들 또한 바쁜 도시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편지를 받았을 땐 시간이 꽤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바울은 나이가 들었으며 감옥에 갇혀 곧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후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후원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이루어 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빌립보서를 썼는데 그 편지는 기뻐하라는 권면으로 가득합니다. 그 기쁨의 시작은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그 기쁨이 커지는 것은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을 나눔으로 가능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넘치는 기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대강절의 기간을 기쁨으로 채워봅시다. 참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기 위해선 먼저 복음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지 다시금 되새기고 기억합시다. 또한 우리는 서로가 사랑의 마음을 나눕시다. 빌립보 교회는 그 사랑을 잊지 않는 방법으로 후원을 하며 사도 바울과의 일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그 사랑을 보였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사랑을 나눌 지체들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찾아보며 그 사랑을 풍성하게 만들어 나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참 기쁨의 성탄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 한주간의 말씀

“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  
<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 >

### <수요기도회>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104 363 / 383

기도 : 나송주 집사

성경 : 시편 42편

제목 :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1. 내용: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고백입니다. (What)

<문단구분>

1~4절 <주님을 갈망합니다>

5절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6~10절 <너무 낙심하였지만, 주님만을 그래도 생각할 뿐입니다>

11절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2. 의미: 신앙으로 내면을 잘 정리하여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Why)

- 1)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
- 2) 원수들의 조롱을 반박하지 못하는 현실의 상황이다.
- 3) 그렇지만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하련다.

3. 적용: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자. (How)

- 1)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므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자.
- 2) 어려움이 닥쳐도 믿음을 추스르고 강한 믿음을 가지자.
- 3)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자.

## 모두에게 응원이 필요할 때

12월이 되면 sns에 많은 글이 쏟아진다. 지인들의 연락은 표현에 따라 현재 모습과 생각을 투시할 수 있는 창이기도 하다. 그래서일까, 나는 한 해의 끝자락에 모두에게 응원이 필요할 때라고 전하고 싶다

마지막 방모임이 공동체 주변에서 이루어졌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모임이라 준비하는 가정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선뜻 신청한 가정에 대한 생각이 많아졌다. 예전 같으면 전화를 해서 내가 준비해갈 수 있는 것에 대한 소식을 전했는데, 오늘은 멈칫하면서 선택한 분들의 몫으로 두자는 마음이었다.

그러면서도 자꾸 생각이 되돈다. 세 아이와 함께 준비한 방모임은 대청소를 시작으로 요리연구가가 되어 주메뉴와 사이드 메뉴, 디저트 까지 준비하는 나름의 격식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천성은 변하지 않는 법일까. 결국 멈칫은 풀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 본다.

척박한 땅에 섬유질 가득한 줄기를 많이 먹으려고 심어 놓은 곳에서 덤으로 얻어진 고구마를 구웠다. 따뜻한 고구마를 맛있게 전하려다 보니 고온에 입이 터진 고구마가 잔뜩 빠져 있는데도 달래지 않은 채 식을세라 그릴을 통째로 차에다 옮기고, 큰딸이 맛나다고 한 달랑 무 김치까지 담는데... ‘그 맛은 호불호가 갈리는데’라며 중얼거리면서 바리바리 포장하고 신발을 신었다.

생활공동체 불빛은 인사라도 하듯 분주한 나의 마음을 밝고 따스하게 비추었다. 맛난 식사와 담소. 특히 ‘라떼~’를 연발하기도 하는 원로(?)들의 청춘과 뒤섞여 마지막 방모임 불빛이 무르익어갔다.

집 앞에 도착하니 신발이 활기차게 나뒹굴며 나를 반겼다. 내 몸에 묻어 있던 흙들이 흙투성이 된 신발을 바라보며 문득 큰 소리로 모두에게 전하고 싶어졌다. 안녕 2023년! 어렵고 힘든 시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에게 추앙!

“추앙은 어떻게 하는 건데?”

“응원하는 거, 뭐든 할 수 있다. 넌 뭐든 된다. 응원하는 거.”

새싹사랑방 정영옥 집사

##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권재만 목사  
설교자 : 정재훈 목사

###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시편 108 : 3-5  
29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영광 영광

###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갈라디아서 5 : 1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123, 112

###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누가복음 2 : 8-20  
오 거룩한 밤 비움사랑방  
“ 시선을 아래로 향하십시오 ” 정재훈 목사

###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503

주님의 사랑이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박태규 전향옥 / 봉헌위원 : 임상희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박민정 안지운  
서진솔 석지인 옥대철 이예은 김보경 진시우 진나우

예 배

## 공동기도문

성탄절을 준비하는 복을 베푸신 하나님  
저희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구주를 보내신 뜻을 깨달아  
저희도 낮은 곳으로 찾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 시선을 아래로 향하십시오

목자들이 들은 소식.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밤에, 베들레헴의 들에서 목자들이 양 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천사가 전한 구주 탄생의 소식과 함께 하늘 군대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표징을 받았는데, 그것은 강보에 누인 아기가 구유에 뉘어있다는 믿지 못할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에게 전한 소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급하게 내려갔습니다.

목자에게 알리신 이유. 보통 사람들의 생각에는 구주 탄생의 소식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알리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먼저 알리셨다는 사실 그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이유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으며,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모두 만나주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선을 아래로 향하십시오. 우리 구주께서는 사람이 머물지 못할, 가장 천한 자리로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들을 만나주시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도 시선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로마의 궁전이나 헤롯 궁전이 아니라 베들레헴 마굿간을 향할 때,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계십니다. 우리도 구주 탄생의 복음을 전한 목자들과 같이, 귀한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최기찬 전도사 / 기도 : 서병욱 집사

##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 꾸러기학교

성경 말씀과 성경이야기 노래를 뽑내는 성경 암송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1년 동안 외운 성경 말씀과 성경이야기 노래를 무대에서 외우는 시간이 바로 성경 암송의 날입니다. 멋지게 준비된 의상과 무대 그리고 마이크를 갖고 꾸러기들이 씩씩하게 나와서 말씀을 외우고, 찬양을 합니다.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외워서 선물도 받고, 자신감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뮤지컬 '친구의 전설'을 관람했습니다. 이지은 작가의 동화책을 뮤지컬로 만든 공연으로 친구를 사귄 줄 모르는 호랑이에게 민들레 친구가 찾아와 다른 동물들을 도와주며 모두가 좋은 친구가 된다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가기 전에 책을 구입해 같이 읽어보고 공연을 갔는데 아이들이 깊이 몰입하며 너무 너무 재미있게 공연을 봤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맛있는 피자 가게에서 점심도 먹고, 암사역사공원에 가서 산책도 했습니다.

꾸러기들이 가장 기대하는 부모님 연극을 봤습니다. 엄마, 아빠, 고모, 선생님까지 모두 힘을 모아서 아주 멋진 연극을 준비하셨습니다. 세 나무들이 멋진 변신을 꿈꿨는데 아기 예수님을 모신 구유, 예수님을 태운 배 그리고 예수님을 못 박은 십자가로 변하여 각자가 원했던 꿈을 이룬 이야기였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공연에 꾸러기 모두가 아주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 교사 : 이어람 >

### 어린이학교

지난 화요일에는 어린이학교 부모님들의 사랑 가득한 저녁식사와 어린이학교 졸업 선배들의 도움과 공동체분들의 많은 사랑으로 어린이학교 학년말발표회를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어린이학교 학년말발표회는 해마다 순서는 조금씩 다르지만 어린이

들이 주제를 정하고 순서를 맡아서 연극도 하고, 연주고 하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는 등 그 시간을 웃음과 재미와 감동으로 채워갑니다. 특별히 올 해는 부모님들께서 축복송도 불러주셔서 그 감동을 더 해주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발표회를 통해 한 해동안 많은 사랑 받았고 그 사랑으로 성장한 어린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발표회를 마지막으로 어린이들은 겨울 방학에 들어갔고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은 아직 한 해를 마무리하는 면담 중에 있습니다. 면담 시간을 통해 가정과 학교가 소통을 하고 일관된 교육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들이 쉽진 않지만 웃음으로 때로는 눈물로 만나는 시간 중에 가정과 학교가 이해를 더해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학기의 마무리인 면담까지의 모든 과정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 교사 : 정다운 >

### 멋쟁이학교

비와 눈바람이 지나고, 땅 위에는 달기도 싫어지는 추위만 남았습니다. 그 와중에 멋쟁이들은 각기 집에서 휴식하며 나름대로의 방학을 보냈지요. 학교에서는 학기말 부모님 면담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짧게는 이번 학기, 길게는 1년에 대해 함께 대화하는 기간입니다. 멋쟁이들 한 명 한 명의 성장과 변화를 기쁜 마음으로 나누고,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대화가 오가다보면, 웃음과 함께 다양한 감정들이 흘러나오곤 합니다. 졸업하는 멋쟁이들의 부모님과는 6년간의 추억을 뒤적여보면서 더욱 큰 감동을 함께 받았습니다. 힘이 부쩍 솟는 격려와 뿌듯함, 보람과 위로가 공존하는 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신뢰가 쌓여가는 면담의 장이 앞으로도 잘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멋쟁이들에겐 곧 방학숙제가 나갈 예정입니다. 휴식 이후의 방학 기간을 또 다른 발전과 도약의 발판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 교사 : 이어진 >

## 나는 남편을 참 좋아한다.

사람들은 내가 이럴 때마다 '남편한테 미\* 여자'라고 한다. 그리곤 이렇게 미치면 얼마나 잘해줄까 하고 상상하는 표정을 짓곤 한다. 그 표정이 재미있어서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수법으로 '신혼 때는 남편보다 더 멋진 남자 배우가 없어서 영화를 못 봤다니까'라고 덧붙인다. 이쯤 되면 사람들은 상상이 아니라 측은한 표정까지 짓는다. ㅎㅎ

사실은 '결혼하면서 평생 내 편이 되어줄 좋은 친구 하나가 생겼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그렇다고 모든 게 다 맘에 드는 것은 아니다. 남편은 귀찮은 것도 많고, 씻는 것도 게으르고, 더욱이 부지런하지도 않다.

그에 비해, 나는 참 귀찮은 여자라고 생각했다. 남편은 내게 아무런 지적이나 편견을 하지 않는다.- 당연히 나는 귀찮은 여자니까. 하지만 이 생각은 내가 모르는 게 많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결혼하고 2년이 지나 이사를 할 때, 가스레인지 버려야 했다. 너무 더러워서. 동네 할머니가 좋아하면서 가져가셨다. '저걸 어떻게 쓰시려나'-민망하면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다. 가스레인지를 매번 닦는 거라는 사실을 그 후 20년이 넘어서야 알았고, 요새 드디어 닦기 시작했다. 갑자기 손님이 오면 당황하는 이유를 이제야 안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주방을 정리하면서 사용한다든가, 선반의 먼지를 제거해야 한다든가, 그 좋아한다는 남편의 입맛을 고려한다든가, 옷차림을 신경 써준다든가 라는 사실도 몰랐다.-물론 이런 것들은 아직도 못한다. 아무것도 모르고 천방지축 행동하는 나를, 남편은 지적질하지 않는다. 부정적인 말도 하지 않는다. 남편은 나에게,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책임을 따지지 않아서 참 고맙다. 그냥 친구-친구란 그냥 존재로서 위로가 되고 즐거운 것이지, 책임을 묻거나 요구하지 않는-로서 대해 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그런 남편이 최근에 한마디 했다. -'이거 너무 많지 않은가?'-라고. 집에서 키우는 군자란 화분이 너무 뻑뻑해서 분갈이를 했더니 20여개의 화분으로 늘어난 것이다. 말없는 남편이 모처럼 들으라고 다 들리게 독백했는데 못들은 척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심했다. 분양하기로.

"작은 화분들이라서 키우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주일 식사 후에 우리 집에 오셔서 하나씩들 가져 가세요. 예쁜 화분 받침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립니다." 남편은 내 삶에서 참 좋은 친구다. 이런 남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루터기사랑방 전경희 집사

## <수요 정오기도회>

인도 : 최기찬 전도사

찬송 : 105, 104

성경 : 누가복음 1장 26절-38절

말씀 : 예수가 나실 것을 예고하다.

중보기도 :

1. 세계 평화와 선교를 위해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

연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고 있는 가자지구 인구의 절반이 굶주리고 있다고 유엔 관계자가 확인했습니다. 가자 공습에 따른 사망자 중 민간인이 61%로, 전례 없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반입할 구호 트럭을 검사할 수 있도록 케렘 샬롬 검문소를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의 팔레스타인 민사 담당 기구인 코가트(COGAT)는 케렘 샬롬 검문소의 추가 개방이 가자지구로 반입되는 구호물자의 양을 두 배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대강절을 맞는 교회와 공동체들을 위해>  
대강절의 그 뜻을 알고 의미 있게 잘 보낼 수 있도록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 위해 <공동체 학교 종강준비>

1) 대강절 기간, 연속기도회, 심방을 위해

2) 종강과 학부모 면담으로 한해를 마무리하는 학교들을 위해

## <생활공동체 소식 >

화요일에 있었던 어린이학교 종강발표회에 생활공동체 식구들이 모두 참석하셔서 어린이들을 많이 격려하고 축하해 주셨습니다. 학교 부모님분과 친지분들뿐 아니라 공동체 식구들도 어린이들을 모두 사랑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주변 곳곳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영하로 많이 떨어져서 동파를 주의하고 난방도 신경을 써야합니다. 게르에서 따뜻한 불을 쬐시면서 추운 겨울 훈훈한 정을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장영미 전도사 >